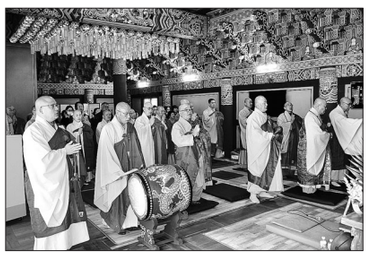
전북 영산작법보존회 선대조사 다례

대규모 영산재 · 군경묘지 합동위령재 계획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가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는 3월 13일 전주시 중노송동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 보문사 법당에서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신중작법, 상주권공, 다례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 아래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례재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영산 스님, 교육원장 지산 스님, 총무 정수 스님을 비롯한 영산작법보존회 회원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해 범패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진감국사 혜소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 38위의 가르침과 의미를 되새겼다.

혜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전 봉서사 부도전에서 다례재를 모신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선대조사 다례재를 다시 모실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은 여법한 공간이 없었으나 이제 전수관이 건립된 만큼 정기적인 다례재를 봉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영산작법본존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정기적인 교육과 봉사활동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대규모 영산재와 군경묘지 합동위령재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군장교 긍정적인 삶 만들어가길"

장성 상무대 무각사, 초군장교 환영법회 봉행



장성 상무대 무각사(주지법사 해징)는 3월 12일 대웅전에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부장 지선 스님, 만경사 주지 증현 스님을 비롯해 기계화 학교장 고광세 소장과 초임장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초군장교 환영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환영법회에서는 5개 병과인 보병, 포병, 기갑, 화학, 공병에 임관한 소위 장교 중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하고, 위문품이 전달됐다.

연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상에는 크게 3가지의 종교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그 운명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며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임 장교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외국인학생 템플스테이 열어

호남대 신입 유학생 대상으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3월 12~13일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백양사에서 1박2일 동안 입학오리엔테이션을 겸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유학생들이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들은 사찰예절 교육과 저녁공양, 타종체험, 탑돌이, 아침예불, 명상, 다도, 단주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사찰문화를 체험하고, 담양 죽녹원 등 인근 문화유적 등을 답사했다.

인항 유학생학생회 회장은 "유학생활 중에 경험해 본 여러 한국 전통문화 체험 중 이번 백양사 템플스테이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기불교 정진, 시대 밝힐 등불되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



선운사 원로 · 강사 스님들과 학인스님들이 졸업 · 입학식을 마친 뒤 법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초기불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학장 환성)이 3월 14일 제5회 졸업식과 제7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3명의 스님이 2년간의 전문과정을 마쳤으며, 5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했다. 졸업생 중 2명의 스님은 3년 과정의 연구과정에 입학해 계속 학업을 이어간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는 학장 환성 스님, 강주 재연 스님, 성륜 스님 등 대학원 교수사 스님들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합창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 학인 스님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졸업식에서는 대일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보적 스님이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승가대학장 환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2년간의 전문과정과 3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친 학인스님들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큰 재목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 재곤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학업에 정진해준 학인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끊임없는 정진과 화합으로 큰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고 각각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졸업생 · 입학생 총 8명

대일 · 보적 스님 성적우수

"불교발전 초석 거듭나길"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총무 심학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초기불교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충실하게 담겨 있다"며 "학인스님들은 초기불교의 교학과 체계적인 수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로 입학한 신입학인스님들은 부처님전에 고불문 올리며 "수학 중 장애를 만날 때마다 대중을 생각하며 청규를 지킬 것"이라며 "우리들의 첫 걸음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익산국악원 김달 교수의 가야금 연주에 이어 빨리어 삼귀오계 봉독으로 시작됐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은 졸업학인스님의 연구성과물 헌정, 사은3배, 학위증 수여,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 고불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불교사상과 역사, 초기 경전 성립과 구성, 빨리어 경율론, 위빠사나 수행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율동 우리절에서 배워요"

광주불교聯 율동강습회 각 사찰 방문해 제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진행된 율동강습회 참가자들이 신명나는 음악에 취해 율동을 즐기고 있다.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기 위한 율동강습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며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단장 일명, 신광사 주지)은 지난달부터 광주지역 각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봉축행사 율동강습회'를 진행하고 있다.

율동강습회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서 진행되는 어울림마당에서 전체와 그룹율동을 일반 불교신도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지역 등에는 이미 보편화된 봉축프로그램이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로 2년째 사찰 연희단과 함께 어울림마당에서 펼칠 율동을 직접 방문해 가르치고 있다.

강성록 광주불교연합회 기획팀장은 "봉축율동을 2년 전부터 처음으로 시도했다. 참여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봉축행사를 진행하는 기쁨을 느낀다"면서 "광주에서는 각 사찰의 참여 신도들이 연로해 직접 사찰을 방문해 율동강습을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즐겁게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로 참여하는 윤보현 선생을 비롯한 강사진 또한 지역에서 율동과 생활체육을 다년간 지도하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로 구성됐다.

법회 이후 율동강습회에 참여한 관음사 이미선 신도는 "지난해 처음 율동을 배울 때는 낯설고 생소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율동과 함께 봉축행사에 참여하니 예전과 달리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는 4월까지 총 50여개 사찰을 찾아 율동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 수원 스님 부안 해경 경승 위촉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는 3월 8일 서장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주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소사 수원 스님 신규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 중인 수원 스님은 "부안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안해경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올바른 정서와 인격 수양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전 직원 및 의경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수원 스님의 임기는 3년으로 해경직원과 경찰대원의 안전한 복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내소사는 앞으로 장기간 바다 위 선박에서 생활해야하는 부안해경대원들의 심신안정과 종교활동을 돕기 위해 정기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내소사는 부안의 공군 호국 의상암 법당과 육군 부안 1대대 법당에서도 포교활동과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가격 : 185,000원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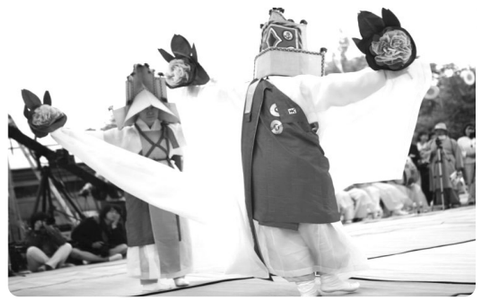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 ■ 예 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中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